

2010.09.20 미래정책연구실

□ 호주, 밀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(Wall Street Journal(2010.09.14) 주요 내용)

1. 밀 생산 전망

- 호주농업자원경제국(ABARE)은 동부지역에 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아 겨울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.
 - 금년산 밀 수확량은 2,510만 톤으로 지난 6월 예상치보다 14% 많고, 2009-10년의 2,170만 톤에 비해 16% 증가가 예상됨. 이는 5년 평균치보다도 36% 많은 수준임.
- 동부 호주의 밀 생산 확대가 2006-07년 가뭄 이후 최악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 지역의 부족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.

2. 밀 수출 효과

-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호주는 수십억 달러의 밀 수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. 또한 비료업체와 수출물류업체 등도 수출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함.
 - 호주는 세계 주요 밀 생산국으로, 자국소비량이 700만 톤이며, 수출물량은 2008-09년에 약 1,400만 톤으로 전 세계 밀 교역량의 10%를 차지함.
 - 밀수출 국가는 대부분 아시아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세계 4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와 브라질, 유럽연합 등임.

3. 특수사양

- Victorian Farmer's Federation의 곡물담당 회장인 Russell Amery는 “밀 수확량이 2,510만 톤으로 예상으로 역대 풍년 중 3번째이며, 매우 전망이 밝지만 11~12월까지 수확하지 못한다는 것과 메뚜기떼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”고 말함.

-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호주증시에서 밀 선물 1월 인도분은 톤당 288달러(호주 기준)를 기록하였고 이는 3개월 전 210달러(호주 기준)보다 37% 상승한 수준임.
- 이러한 곡물 수확과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곡물회사들의 수익을 높일 것임. 또한 농가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이 개선됨으로써 농업부문의 판매회사에도 이익이 될 것임.

4. 시사점

- 호주의 밀 수확량 증가 전망은 높은 국제 밀가격이 안정세로 회복되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하지만 메뚜기떼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확때까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.

□ 미국, 옥수수 재고량 최저 수준 예상 (Financial Times(2010.09.10) 주요 내용)

- 미국 정부는 금년 옥수수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금주에 옥수수 시세가 회복되어, 늦여름까지 현재 시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의 옥수수 생산 비중은 전 세계의 40%를 차지하고,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. 하지만 USDA는 금년 옥수수 생산량이 고온에 따른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2% 감소한 132억만 부셸로 예상함. .
- 옥수수 시장은 러시아의 가뭄과 서부유럽의 폭우에 따른 밀 수급 불안정으로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임. 더욱이 돼지, 닭 사육 농가들이 사료로 밀 대신 옥수수를 사료로 대체함에 따라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였음.
 - 미국 옥수수 재고량은 지난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.
 - 시카고 선물시장 12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지난주보다 2.2% 상승한 부셸당 4.74달러로 거래되었음.
- 이와는 대조적으로 밀 재고량은 러시아사태 이후 미국산 밀에 대한 수출

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- 시카고 선물시장 12월 인도분 밀 가격은 지난주보다 1.8% 하락한 부셸당 7.28달러로 거래되었음.
- 농산물 가격 분석가인 Lewis Hagedorn은 향후 미국산 밀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국내 재고량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.

(시사점)

- 밀 가격 상승에 따라 대체재인 옥수수의 수요증가로 옥수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. 그러나 향후 밀 가격이 안정세로 회복되면 옥수수 가격상승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.
- 향후, 밀 가격 및 옥수수 가격의 동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의요망.